



보도일시	2022. 2. 8. (화) 즉시 보도 부탁드립니다.		
단체명	대한민국 대전환 선대위 산재예방일터안전위원회	위원장	정혜선, 김영배, 민형배, 이수진(비례)
담당자	문지현 사무국장 010-7491-7221	담당자	문지현 사무국장 010-7491-7221
		E-mail	healthandsafety@naver.com
사진	0	영상	X

## ‘노동자가 안전한 대한민국’ 을 위해 8일, 민주당 선대위 ‘산재예방일터안전위원회’ 출범

- 정혜선 가톨릭대 교수, 김영배 최고위원, 민형배 국회의원, 이수진(비례) 국회의원 ‘산재예방일터안전위원회’ 위원장 임명
- 산업재해 및 직업병의 획기적 예방 위해, 안전보건 관련 단체 다수 참여
- 노동자 생명 존중하는 일터안전 공약 확산, 정책 간담회 개최 예정

- 2022년 제20대 대선 승리와 노동자 생명존중 가치 구현을 위한 ‘산재예방일터안전위원회’가 8일 공식 출범했다.
-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정혜선 가톨릭대 보건대학원 교수, 김영배 최고위원, 민형배 국회의원, 이수진(비례) 국회의원을 ‘산재예방일터안전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 선대위 ‘산재예방일터안전위원회’는 ▲안전존중 사회 구현 ▲노동안전망 강화 ▲후진적 산재 예방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4대 의제로 설정하고, 산업재해 및 직업병 예방 관련 이재명 후보의 일터 안전 공약을 전국에 확산하며, 관련분야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대한민국 일터 안전 환경조성을 위해 남은 대선 기간 동안 밀도 높은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 대한민국 산업재해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1년에 약 2천여 명의 노동자가 근무 중 사망하고 있다. 최근에는 광주 화정동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붕괴사고로 6명의 희생자가 발생하였고, 경기 양주시 채석장 붕괴사고로 3명이 사망하는 등 지속적인 산업재해 발생으로 노동자의 생명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10명 중 9명이 산업재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 산업재해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 김영배 최고위원, 민형배 국회의원, 이수진 국회의원과 함께 ‘산재예방일터안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은 정혜선 가톨릭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지난 30년 동안 산업안전보건 활동에 헌신한 국내 최고의 안전보건 전문가로서 현재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 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산재예방일터안전위원회’는 안전보건 관련 단체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 중심의 일터 안전 공약을 개발 및 확산함으로써 더이상 일하다 희생되는 노동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적 제도 정비 방안 마련에 주력할 예정이다.
- 정혜선 위원장은 “청년 시절 산업재해를 직접 경험한 이재명 후보는 노동자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는 후보”라면서, “산재예방일터안전위원회를 통해 이재명 후보의 의지와 신념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끝)



< (사진) 정혜선 산재예방일터안전위원회 공동위원장 >